

사회

2010 희망일기

② '사랑의 집' 입주 한상근씨 가족

'해비타트' 도움으로 내 집 마련 "가족들과 희망찬 미래 설계해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희망 가득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어요."

여 뿐 아니라 총 건축비 24억원 중 10억원도 지원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한씨는 그동안 시각장애(6급)를 안고 있는 아내 김선희(44)씨와 자녀 3명과 함께 월세 20만원짜리 방 두칸 집에서 힘들게 생활해 왔다.



지난해 말 한국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운동) 전남동부지회의 도움으로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의 새 집으로 입주한 한상근씨의 아내와 자녀들.

광양 무주택자·장애인 등에 20동 보급 기업 단체 후원·7천여 자원봉사의 결실

리에 위치한 80㎡(24평)형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집 입구에는 한씨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도 내걸렸다. 해비타트 전남동부지회는 지난 4월 첫 공사 이후 9개월 만에 광양읍 우산리 월파마을 5천㎡(1천500여 평)부지에 다세대 주택 20동을 지었다.

다행히 한씨 가족은 해비타트측이 제시한 '5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했고, 가족이 3명 이상 돼야 한다'라는 조건을 통과해 새 집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월파로 하이빌'을 짓기 위해 7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건축현장에 참여했고, 600여명의 개인후원자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단체, 기관, 교회 등이 힘을 보탰다.

김씨는 "셋방살이를 벗어나 내 집이 생긴다는 희망과 즐거움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면서 "새 집에 입주한 뒤 아

이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며 활짝 웃었다. 이번 입주 가정은 각 세대별로 총 40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20년동안 매달 29만 원씩만 내면 진짜 '내집'이 된다. 다세대 주택 건설비가 6천960만원을 20년동안 무이자 상환 조건으로 입주할 때 때문이다.

사회 봉사활동"이라면서 "집이 없어 어려움을 받는 이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비타트 전남동부지회는 올해 광양읍에 5동 20세대의 집을 건축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총 72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한편, 해비타트(Habitat)란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탈출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입주대상자가 함께 하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다.

'배달사고 돈 상자' 수사 난항

광주시 남구 A의원에 게 보내려던 돈상자가 잘못 배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여부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3일 광주 모 도서관 직원인 이모(여·52)씨가 남구 A의원의 옆집에 돈상자를 배달한 것과

관련, "이씨와 A의원 사이에 돈을 주고 받기로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이씨와 A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돈상자의 성격 등을 놓고 조사를 벌였으나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 공모 정황 못 찾아 금품수수 혐의 입증 어려움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돈 상자를 전달하고 A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무실 전화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의원과 남구청 공무원 B(여·35·7급)씨의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불러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인사 청탁을 위해 돈 상자를 건네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의원과 공무원 B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A의원과의 이씨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왜 혼자 낚시하나" 택시기사 훈계에 칼부림

새해 연휴 사건·사고 잇따라

경인년(庚寅年) 새해 첫 연휴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여수경찰은 3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여수시 호명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A(55)씨가 "선달 그림날 낚시나 하고 다니다"고 말한데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시비 끝에 A씨가 차를 세우자 길가에 있던 돌로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조수석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과 배를 찔러 한 번에 A씨를 택시에 싣고 여수시내를 돌아다녔으며, 범행 3시간여 만에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일 오후 6시10분께 순천시 별량면 철도 건설목에서 박모(여·63)씨가 목포발 순천행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열차 기관사는 "열차가 진입하는데도 A씨가 철로 옆 자갈밭에 그대로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친척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에선 모 아파트 1층 출입구 지붕에 A(여·39)씨가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일 오후 7시30분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신모(43)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여수해양경찰은 경비함정 5척 등 배 16척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암 공무원 부부 피살

경찰 "우발적 범행" 결론

'영암 공무원 부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일 "용의자인 김모(24)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추가 동거나 공범 등이 없는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5일째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딸다름 중 아버지(5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어머니(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됐다.

곤돌라 공중에 멈춰 4000명 '달달'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의 곤돌라 공중에 멈춰 서 수백명의 스키어들이 추위와 불안에 떠는 사고가 발생. ○3일 무주리조트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0분께 무주군 덕유산 향적봉 무주리조트 곤돌라 탑승소 부근에서 곤돌라 운행장치의 타이밍벨트가 끊어져 곤돌라 80개에 탑승했던 스키어 400여명이 5분간 공중에 매달리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 ○리조트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수리인력을 투입해 타이밍벨트 교체작업을 벌인 끝에 사고 30분 만인 오후 1시40분께 운영을 재개해 안도의 한숨.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의 곤돌라 공중에 멈춰 서 수백명의 스키어들이 추위와 불안에 떠는 사고가 발생. ○3일 무주리조트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10분께 무주군 덕유산 향적봉 무주리조트 곤돌라 탑승소 부근에서 곤돌라 운행장치의 타이밍벨트가 끊어져 곤돌라 80개에 탑승했던 스키어 400여명이 5분간 공중에 매달리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 ○리조트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수리인력을 투입해 타이밍벨트 교체작업을 벌인 끝에 사고 30분 만인 오후 1시40분께 운영을 재개해 안도의 한숨.

Advertisement for '남성 헤어 기능장호' (Men's Hair Function) featuring '大山프리모님네기발' (Dae San Pre-mo-nim-ne-gi-bal). It includes a large '50만원' (500,000 won) price tag and mentions '최슬림!!' (Slimmest!!) and '각 피부' (Each skin). The ad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a representative and a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UPGRADE' featuring a modern office interior with desks, chairs, and computers. The text includes '최신 트렌드' (Latest trend) and 'UPGRADE' in large letters. It also mentions '최고의 명품' (The highest quality) and '최고의 명품' (The highest quality).